



여행기 (Travel)

KORUS는 울산대와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 대학 및 톨스크 대학, 이 3개 대학이 합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적 심포지움이다. 올해는 6회째로 노보시비르스크대학 주최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월드컵 4강전과 3-4위전이 열리던 그 때이다. 노보시비르스크는 “새로운 시베리아 시”란 의미가 말해주듯이 시베리아의 중심도시이다. 시베리아는 선사시대부터 한반도문화와 연관이 있어왔다고 한다.

KORUS 2002_{kor}

다녀와서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김 순 배

도시인구는 150만으로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와 페테르스부르크에 이어 3번째 도시라고 한다. 대략 러시아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3시간(여름에는 2시간)이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 37Km 떨어진 곳에 있는 위성연구도시인 아카더고로독은 핵 물리연구가 특히 유명하며, 이로 인해 러시아가 미국에 필적하는 핵무기 기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23일 노보시비르스크를 향해 출발하였다. 예상과 달리 서울에서 노보시비르스크로 가는 시베리아항공의 직항편이 주2회나 있었다. 노보시비르스크는 시베리아항공의 중심도시로 아마도 모스크바 이외의 러시아 중서부지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로 직항편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비행기는 러시아제로, 오래되어 보였으며, 소음이 심하고, 기름냄새가 날 때도 있었다. 한번은 이륙후 비행기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하여 불안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비행실력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기간 내 5번 모두 언제 착륙하나 싶어 밖을 보면 벌써 활주로를 달리고 있을 정도였다. 입국수속과정은 무척 열악하였다. 입국심사는 2곳, 세관은 1곳에서만 열었고 그나마 새치기도 무척 심하였다. 수속이 모두 끝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다.

러시아 어디나 그렇지만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도 자작나무 숲이 무성하였다.

우리가 묵은 “노보시비르스크호텔”은 역앞에

있는 23층 건물로 주위에 높은 건물이 없어 단연 돋보이는 건물이었다고, 방에서 보이는 전경도 훌륭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2번째로 비싼 호텔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방의 내부는 소박하였다.



·차이코프스키 무덤앞에서의 필자

집을 풀고 바로 앞의 노보시비르스크역에 갔다. 이 역은 시베리아 횡단열차 중의 주요 정역 중의 하나이

다. 역 광장에는 술, 담배, 식품 등을 파는 가게가 죽 늘어서 있었으며, 횡단열차가 정차할 때 내려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곳으로 보였다. 여기에도 국산 컵라면과 초코파이가 많이 보였다. 역광장의 포장마차에는 “샤슬릭”이라는 꼬치구이가 한줄에 50루블(2,000원)이었는데, 우리의 입맛에 맞았다.

24일(월)은 10시부터 바이올린 합주에 이어 심포지움 시작행사가 있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식사(반쯤은 한식(숙주나물, 고사리무침, 가지나물, 오이무침)으로 나와서 무척 놀랐다. 이 대학 부총장인 한국계 3세 Prof. Choi가 한국 참석자들을 위해 많은 신경을 쓰셨다고 했다. 노보시비르스크의 교민은 약 500명 정도로 사업이나 태권도장 등을 경영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는 의학 schedule이 없어 시내관광을 하였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시의 중심지에 레닌동상이 있었다. 여러 선생님들이 예술공연을 관람할 시기를 원했으나 여름에는 모두 해외공연이나 휴가를 가 공연이 없다고 했다. 거리를 다니는 버스중에 한국말(예: 00운수)이 있는 것이 있었다. 러시아에서 다니는 버스의 일부가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차라고 하였다.

의학부문의 시작행사는 25일 따로 있었다. 양측 학장님의 인사말이 끝난 후 4 part로 구성된 학생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25일은 주로 기초의학에 대한 발표였다. 학회장은 무척 더웠다. 낮에는 30도 까지 올라가는 것 같았다. “시베리아”라는 말에 겁먹고 모두 긴 옷으로만 가져온 것은 잘못이었다. 오후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 노보시비르스크-대학생들의 민속공연

큰 병원이지만, 병원 전체적으로 환자가 많지 않았고, 소비성 물품들이 잘 안보였다. 낮에 방문하였는 데도 병원은 전체적으로 어두웠다. 혈액투석실을 볼 수 있겠냐고 했더니, 중환자실 안에 있어서 옷을 다 갈아입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투석실은 방문하지 못하였다. 복막투석은 중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다. 다녀와서 독일의 투석기회사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적으로 6,000명 정도가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혈액투석 환자가 15,000명이 넘는 데 비하면 일부의 환자들만이 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저녁식사 시간에 한국과 독일전을 보았다. 물론 식사는 제대로 못하고 맥주 안주로나 가끔 집어 먹었다.

26일은 오전에는 임상의학발표가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약 1시간 반 정도에 걸쳐 노보시비르스크대학 학생들의 합창, 독창, 합주 및 민속공연 등의 환송공연이 있었다. 정말 학생들이 맛나 싶을 정도였다. 민속공연에서의 복장이나 창 같은 소리는 우리의 그것과 무척 유사하였다. 3일 동안의 3회의 공연을 통해서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3일내내 듣는 사람들보다 공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공연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신경써서 접대하는 지도 느낄 수 있었다. 저녁식사는 “소백”이라는 이곳의 유일한 한국 음식점을 찾았다. 한국음식을 안 먹은 지 4일밖에 안되었지만 오랜만에 김치찌개를 보



· 페테르스부르크의 여름궁전

큰 “오블라스 타냐 클린체스 카야” 병원을 방문하였다. 자작나무 숲속에 있는 2,000 병상 규모의

자 모두 밥 한그릇씩 후딱 비웠다.

27일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추가로 3일을 모스크바와 페테르스부르크로 여행하기 위해 떠났다. 모스크바는 번잡하였으며 사람들이 적대적인 경우가 있었다. 노보시비르스크와 달리 우리를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다. 러시아에서는 호텔에 들면 우선 여권을 제출하여 거주지 등록을 한 뒤 다음날 아침에 여권을 돌려준다. 하지만 노보시비르스크와 달리 이곳에서는 가이드가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해서라고 했다. 모스크바는 크렘린 궁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그동안 크렘린이라는 말을 소련공산당의 본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곳은 러시아제국의 오랜 왕궁이기도 했다.



·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28일은 모스크바에서 페테르스부르크 가는 비행기를 내린 후 필자를 비롯한 몇 명에서 가방 속에 있던 달러 현금만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가방속에 돈을 두지 말라는 충고를 안 들었던 것이 잘못이었다. 페테르스부르크는 과거 제정러시아의 수도답게 볼거리가 많았다. 건물들이 대개 100년 이상 되었다고 하고 도시 곳곳에 유적이 남아있어 도시 자체가 예술적 이었다. 그중 여름궁전이 가장 멋있었다. 핀란드만 바로 앞에 있는 이곳은 조각품들에서 뿜어나오는 수많은 분수로 장식되어 분수궁전으로도 불린다고 했다. 겨울 궁전이라고도 불리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보았던 러시아 작가들의 그림들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잔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옛날의 갑옷이나 황금마차 등도 인상적이었다. 거리에는 삼성, LG의 간판이 많이 보였다. 특히 페테르스부르크의 거리는 삼성간판으로 도배한 것 같았다.

러시아 여행을 끝내면서 이번 KORUS2002를 준비해 준 러시아 측에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환대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1